

중소·벤처기업 현장 목소리 들어

전주첨단벤처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19개 입주 기업·기관, 졸업 기업 등 참석

작지만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독립형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 전주시가 중소기업 현장에 찾아가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9일 팔복동 전주 첨단벤처단지를 방문해 14개 입주기업과 3개 지원 기관, 벤처 단지에서 성장해 졸업한 2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김 시장은 전주 첨단벤처단지를 방문한 것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온 중소기업 대표들을 격려, 전주 첨단벤처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참여 기업 대표들은 올 한해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전주 첨단벤처단지는 지난 2002년 조성된 이후 급형·열처리·주조 등 뿌리 산업 관련 기업을 위한 산업 단지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급형, 기계·자동차·드론 등을 제작하는 14개 기업과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사)캠텍종합기술원과 전주국방벤처센터, (사)전주벤처기업육성특성단지 개발전협의회 등 3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지난해 전주 첨단벤처단지에서는 총 194명의 직원들이 흘린 땀과 열정으로 총 297억의 매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전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이 되고 있다.

전주시설공단 주차 운영부 설연휴기간 정상 운영

전주시설공단 주차 운영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유·무료 총 82개 소의 공용 주차장을 정상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유료 주차장에는 연휴 기간 15,200여 대의 차량이 이용, 치명자산 서클버스 이용객 1,300여명, 차량 450여대를 많은 이용객이 유·무료 공용 주차장을 이용했다.

주차 운영부는 명절 연휴를 맞아 종합 대책을 수립, 시설 이용 불편에 실시간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황실 및 24시간 통합 관제 센터를 운영한 결과 1건의 민원 및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 편의를 위한 노력으로는 귀성객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0개 소의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 운영해 시민들이 명절맞이에 부담을 덜었다. /채규남 기자



‘씨 뿌리고 키우고 수확하고 나누고’

전주 코끼리 유치원 유혜숙 원장과 원생 400여명이 19일 전주시장실을 방문,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도서 지원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에 씨 뿌리며 57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채규남 기자

업의 성장 기반이 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중소기업들이 전주 첨단벤처단지에서 처음 기업을 세우고 성장해 나갈 때마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벤처단지에서 자신의 기업과 꿈을

키워 작지만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독립형 중소기업으로 키나갈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현재 전주 첨단벤처단지의 건물 노후화 및 부족한 작업 공간 등 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

해 오는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전주 첨단벤처단지 내에 총 268억 원을 투입해 지식 산업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지식 산업 센터가 준공되면 전주 첨단벤처단지는 전주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규남 기자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도서관’

전주시, 23일 도서관·독서문화정책 포럼 개최

전주시가 도서관을 마을의 중심이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포럼을 연다.

전주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11개 시립도서관 직원과 전주시 공·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도서관·독서문화 정책 포럼’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도서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의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와 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책 읽는 전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조금주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관장의 ‘도서관의 미래, 미래의 도서관’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김홍렬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채기을 가을건축 대표, 정운희 월간 독서경영 대표가 참석하는 지정토론회도 이어진다. /채규남 기자

평생학습대학·우리학교 수강생 모집

전주시 평생학습관, 26일부터

전주시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2018 평생학습대학 1학기(3~8월) 및 우리학교 시즌 1(3~5월) 수강생을 오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평생학습대학 1학기과 우리학교 시즌 1 프로그램은 오는 3월 5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평생학습대학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정보 격차 해소하는 경제 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규남 기자

평생학습을 위한 직업 능력 향상 과정으로 ITQ한글과워드포인트 △중국어 회화를 비롯한 다양한 인문 교양 교육 △여름스케치, 우쿨렐레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 등 24개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우리학교’는 △나를 살리게 한 유럽 미술관 산책’의 저자 최성운 작가의 특강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아동 권리와 긍정적 훈육 교육 △가죽이 함께 떠나는 역사 기행 △어린이 대상 명화와 놀고 미술로 말하고 등 30개 프로그램이 3월부터 5월 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onju.go.kr) 참고, 전화(063-281-5267)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설공단 ‘시설 안전 점검반’, 모든 시설장 일제 점검

전주시설공단은 국가 안전 대진단 기간 동안 공단 기술직을 총동원한 시설 안전 점검반을 편성, 모든 시설장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은 3월 30일까지, 시설물 점검 실명제로 책임있는 시설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설 안전 점검반은 10여 명의 각 분야 전문 기술직(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으로 구성, 화산체육관을 비롯한 체육·공원 시설 18개, 주차 시설 8개, 장사 시설 1개, 총 27개소를 연간 5회(설맞이, 해빙기, 우기 및 태풍 대비, 추석맞이, 동절기 대비)에 걸쳐 점검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국가 안전 대진단 점검을 통해 각 시설장의 안전상 불안 요소를 조기에 발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원불교 법당 침입 금품 훔친 2명 구속

야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원불교 법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9일 특수절도 혐의로 홍모(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자정에 익산 신용동 한 원불교 법당에 들어가 현금과 노트북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7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각각 전과 16번과 13번으로 재범 우려가 있고,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는 등 이를 감안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 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전주가 기억하는 3.1운동 기록 찾습니다

시, 21일~3월 30일까지 ‘전주 기록물 수집공모전’ 개최

전주시는 3.1운동을 포함한 독립운동과 광복 이후 독립 운동 기념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소중한 기억을 모은다.

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주의 3.1운동의 역사성과 도시의 생활상이 담긴 기록물, 3.1운동을 포함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기념식, 재현 행사, 학술 자료 등 광복 이후 활동 자료 포함),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가 뛰어난 전주 관련 기록물 등을 모으는 2018 전

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집 대상 기록물은 3.1운동과 그 후 독립 운동, 광복 이후 각류(사진, 동영상), 문서류(족보, 일기), 박물관(생활 물품, 기념품)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다.

응모된 기록물들은 감정평가단 심사를 통해 3.1운동 부문과 전주 문화적 보존 가치가 각각 대상(꽃심상) 1명과 최우수상(대동상) 2명 씩을

선정하는 등 총 51명의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phm0507@korea.kr)로 접수하거나 전주시 총무과(063-281-2268, 2551)로 해당 기록물과 함께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3.1운동은 전주에서 3월 13일 남부시장 인근에서 시작됐다. /채규남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